

새로나온 책

산사서 느끼는 부처님 가르침



‘옛절을 거닐며’

이희재 지음
불교서원 / 8천6백원

이희재 교수(광주대 외국어학부의 명상기행집 <옛절을 거닐며>는 일반적인 기행문과는 사뭇 다르다. 기행문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경로와 시간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 산과 숲, 봄바람과 새소리, 하물며 돌담 옆에 피어 오른 민들레까지 전하는 무언의 진리 앞에 언제 어떻게 왔느냐는 여정은 단지 세속적인 제망일 뿐이다. 책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지만 특정한 소재목이 붙지 않았다. 무심코 찾은 산사에서 느끼는 가르침 즉, 부처님의 마음을 형식 없이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불교 관한 내용 사전식 해설



‘알기쉬운 불교이야기’

영관 스님 엮음
삼양 / 9천원

불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교리나 사상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불자들이 방대한 불교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영관 스님(삼륜종 총무원장)이 쓴 <불법승과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이야기>는 부처님의 생애, 경전, 교리, 사찰, 스님, 일반신도 등 불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식으로 묶어 놓았다. 책 말미에는 ‘방편’, ‘이판사판’, ‘연비’, ‘불교의 4대명절’ 등 용어를 자세히 해설해 놓아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참나 찾기’ 옛이야기식 풀이



‘도술이야기’

보진 지음
일월사 / 1만5천원

<도덕경>을 옛이야기 식으로 풀어 쓴 책이다. 효랑이 담배피던 애기라든가 옥황상제, 선녀 등 한번쯤 할머니 무릎을 베개삼고 누워 들어봤을지언만 구수한 옛 이야기의 소재가 등장하지만 이 책이 주는 결론은 명확하다. 인간은 거울에 비치는 모습만이 자신의 모습이라 생각하나 인간에게는 또다른 참나가 있다. 그 참나를 찾기 위해서는 ‘도(道)’를 닦듯이 심신을 매일 수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해탈(?)을 누릴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I 이수라의 눈물, II 시간위에 지은 집’

성낙주 글 / 하경옥 그림
창조문화 / 각 7천5백원

불교유산 색다른 방법으로 해석

문화재 창작소설

의 오랜 누습(陋習)과 전란으로 말미암은 인간 질곡의 부정을 떨쳐버리고 밝고 화사한 인간의 세계를 표현한 영검의 바위가 부르는 ‘생명찬가’로 형상화시켰다. 절상대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을 완전히 깬다. 절상대에 관한 평론 ‘우주의 우물-선택여왕의 성체(聖體)를 읽어보면 절상대 내부로 통하는 층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용적인 가치보다는 상징적 역할쪽에 무게중심을 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덕대왕 신종 흔히 말하는 에밀레종 전설도 기존 것과 완전히 다르다. 보시할 것이 없자 어린아이들 내주었다는 것에 과감한 비판의 칼을 들이대며 그 설화는 당시 해공왕과 모후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경주 분황사도 향기로운 황제의 절에서 원효대사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한도는 완당 김정희의 삶을 추상화 한 것으로, 영주 부석사는 고대 동양 산국을 뒤흔든 러브로망의 터전으로 해석하는 등 일찍이 제기된 바 없는 새로운 해석을 펼치고 있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문화재 창작 소설? 처음 들어보는 장르다. 문화재와 소설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식견이 넓어야 가능한 것인 만큼 웬만한 글장이의 배짱은 아닐 듯 싶었다. 하지만 책을 받자마자 저자의 이름부터 확인해보면 그제서야 고개가 끄덕여 질 것 같다. 소설가이자 미술사학자인 저자의 문화재적 식견과 총합살인과도 같은 필력만큼은 익히 알려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바로 동국대 국문과 출신으로 장편소설 <차크라 바르탄>, 평론 <석굴암을 위한 변명> 등을 내놓기도 한 바 있는 성낙주 교사(50· 노원중학교·사이다).

석가·다보탑

“지상에서 가장 빛나는 두 꽃송이”

백제의 미소

“영검의 바위가 부르는 생명찬가”

이외에도 ‘지상에서 가장 빛나는 꽃송이’가 풀이라고 표현한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 고대 목조건축기술의 정점인 ‘황룡사 9층탑’, 화를 자식으로 기

르던 선녀(仙女)의 환생으로 본 ‘고려상감청자운화관매병’ 등의 표현은 저자 특유의 풍부한 상상력과 문화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대목들이다. 저자는 “그동안 이 땅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대대부분 고정관념과 부정확한 인식에 매몰된 채 그것들의 의미를 재창조하거나 현재화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우리는 저지 않은 빛을 문화유산들에 지고 있는 셈이며 그것들을 자유롭게 변주해 낼 수 있는 소설이란 유용한 장르를 통해 많은 유산들을 색다른 방법으로 융성시키고 싶었다”고 출판 의도를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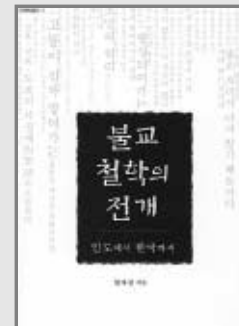
불교 핵심이론 철학적 요약

‘불교철학의 전개(인도에서 한국까지)’

한자경 지음
예문서원 / 9천원

불교철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종에 나와 있는 책들은 많다. 하지만 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적 교리나 불교사의 서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사상적 깊이와 심오함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연구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단 한편의 책으로 묶어 낸다는 것 자체

가 극히 요약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불교철학의...>는 자칫 뜬구름 잡는 듯한 설명으로 비칠 수 있는 불교의 핵심이론을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분석해 철학적으로 재정립했다. 이 책은 크게 ‘석가의 생애’, ‘불교의 근본 교리’, ‘인도의 이상주의’, ‘중국의 현실주의’, ‘한국의 주체주의’ 등 다섯 장으로 나누고 있다. 근본불교에서부터 무아(無我)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불교를 자아와 무아, 그리고 마음과 일심의 문제로 일관해 보면서 그 안에서 인간 개체의 존재와 우주 세간까지를 설명하려 했다.



‘해우소’ ‘휴급소’란 말은 누가?

‘해우소에서 만난 큰스님’

박기영 엮음
고요아침 / 9천5백원



이 책은 근대 한국불교를 중흥시킨 경허, 경봉, 만공, 만허, 성철, 전강, 청담, 효봉 등 20세기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의 숨겨진 재미있는 일화를 묶었다. 책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사찰이나 전통차집에 가면 화장실 대신 붙어 있는 ‘해우소’를 누가 지은 것일까 한 번쯤 의문을 품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온몸에 있는 근심을 풀어버리는 곳이란 의미를 알면 작명한 이의 재치와 기발함에 혀를 내두른다. 바로 경봉 스님이다. 스님은 시자에게 나무토막에 붓글씨로 ‘휴급소(休息所)’와 ‘해우소(解憂所)’ 두개를 써서 내달았다. 소변보는 곳엔 ‘휴급소’, 큰일 보는 곳엔 ‘해우소’를 내걸라는 것이었다. “이 세상

큰스님들의 일화 속

깨달음의 메시지

에서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일이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희랍인 일은 있어버리고 바쁘지 않은 것은 바쁘다고 그래... 뱃 속에 쓸데 없는 것이 들어 있으면 속이 답답해. 근심 걱정이 생겨. 그것을 그곳에 다 버리는 거야. 휴급소와 해우소에서 근심걱정 버리고 가면 그것이 바로 두 다투는 거야.” 일반 대중들에게 재치있고 더 쉬운 법문을 통해 깨달음을 준 경봉 스님의 기사가 돋보이는 일화다. 이와같이 이 책은 일상에서 일어났던 큰 스님들의 일화를 통해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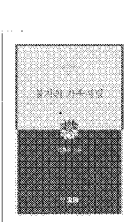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공리	시공사
2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스님	시공사
3	더 오래된 과학, 마음	해트윈트	여시문
4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부다가 되리라	비키 메킨지	김영사
5	금강경	전재성 역주	한국예림대출판부
6	꿈	단정자취	호미
7	영가원도	우룡스님	효림
8	유식 30송	서광스님	불광
9	왕생론주강설	이태원	윤주사
10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락스님 옮김	초기불현역원

도서 안내: (02) 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여시문 전화: (02) 737-0695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가족을 부처님처럼! 불자의 가족사랑



김현준 지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올리는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진정한 사랑, 이것이 합하여져는데 녹아내리지 못할 열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본문중에서-

- 여기 부처님께서 깨우쳐주신 비결에 기초하여
- 가족이 되어 만나는 인연,
- 가족을 위한 세가지 기도법과 참회법,
- 걱정 대신 축원을 하는 생활,
- 구체적인 향상의 자녀교육법,
- 부부사랑을 키우는 비결,
- 불교 특유의 효 사상과 효도방법 등을 감동적으로 풀이한 책이 있습니다.

감히 청하옵나니, 이 책을 통하여 가족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과 나, 그리고 우리의 주위가 차츰 불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4×6판 / 176쪽 / 값 3,5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다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쪽 / 값 6,000원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 경전!

- *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 ① 금강경
 - *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 ② 부모은중경
- 독송의 방법과 축원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각각 100쪽 / 국판판 / 값 1,000원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달라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찬,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항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기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